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304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7년 7월 3일 (요일 5월 10일) 월요일

광주 에너지밸리산단 행정절차 '잔걸음'

19일까지 산단계획 승인 위한 주민공람...내일 대촌동 주민센터서 설명회 개최

총 4500억 들여 147만㎡ 규모...국가산단 2019년·지방산단 2021년 조성예정

광주의 미래 먹거리산업 기반 구축과 에너지 동력산업의 중심이 될 에너지밸리산업단지에 대한 행정절차가 본격도에 오르고 있다.

광주시는 2일 "에너지밸리산단 지구지정 과 산단 계획승인을 위한 공람 공고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산단 계획 승인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로 산단 사업계획과 환경, 교통, 재해 등 사업 전반에 대해 오는 19일까지 주민공람이 이뤄진다. 4일 오후 2시에는 대촌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가 열린다.



적조 방제 모의 훈련하는 여수시

이날 훈련은 예찰과 황토살포·수류방제, 가두리 이동, 치어 방류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달 30일 오후 여수시 남면 화태도 인근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전남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남해수산연구소, 여수시 등 유관기관·어업인이 합동으로 황토 살포 등 적조 방제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전남 귀어인구 3년 연속 전국 최다...40대 ↓ 54%

전남도, 통계청 발표 자료 분석...상대적 젊은 귀어인 전남지역 선호

전남 어촌으로의 귀어인구가 3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통계청 발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한 해 동안 어촌계 진입 장벽 등으로 전국에 9297가구 1338명이 귀어해 2015년 9917가구 1446명보다 627가구 108명이 줄었다. 반면 전남에는 3457가구 502명이 귀어해 전국 지자체 가운데 지방에서는 유일하게 늘어 정부 공식통계 발표 이래 3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전남 다음으로 충남 2867가구, 경남 837가구, 전북 767가구 등의 순이었다. 연령별 전남지역 귀어인은 40대 이하가 54%를 차지했다. 이는 전국 평균 49%보다 5%가 높은 것으로, 상대적으로 젊은 귀어인들이 전남지역을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전남지역 귀어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어업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양식 어장의 74%가 전남에 있고 수산물 생산량도 전국의 52%를 점유하는 등 수산업

경쟁력이 다른 지역보다 뛰어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고흥군에서 신규 양식장을 개발해 귀어인에게 양식장 이용권을 우선 제공하는 등 귀어 장벽 해소를 위한 노력도 한 몫 했다.

양근석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귀어인이 전남을 선호하는 이유는 전남이 명실 상부한 전국 제일의 해양수산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더 많은 도시민이 전남 어촌으로 돌아와 꿈을 실현하도록 적극적이고 상세한 상담과 안내체계를 만들고 물질적·기술적 지원도 늘려나겠다"고 밝혔다.

김정환 기자

주민 공람과 설명회에서 사업에 대한 건의 또는 반대의 의견을 반영해야 할 사항은 서면으로 작성해 광주시 부자유치과나 광주도시공사 개발기획팀, 남구청 도시재생사업단 대촌동주민센터 등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광주에너지밸리산단은 남구 대촌동 일원 국가산단과 남구 압촌동·지석동 일원 지방산단으로, 모두 4500억원을 들여 147만㎡ 규모로 조성된다. 국가산단은 2019년까지, 지방산단은 2021년까지 조성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지방산단은 94만4000㎡ 규모로 지난 21일 국토교통부에서 그린벨트해제가 고시돼 본격 사업 추진을 할 수 있게 됐다.

에너지밸리산단은 광주·전남혁신도시와 연결되는 최적의 위치에 조성되는 산단으로 주거와 유통 지원 기능이 복합된 첨단 단지다.

전력에너지융합산업 분야에 집적화된 산업생태계를 조성해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스마트에너지 기업과 지역 내 미래 먹거리, 국가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기업 등을 유치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7월에 착공하는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로 기업의 물류 비용 절감은 물론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로도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산단에는 한국전기연구원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광주분원, LS산전 등 에너지 관련 기관과 기업이 입주할 계획이어서 명실상부한 에너지산단으로서 면모를 갖출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신봉우 기자

'장마전선 영향' 광주·전남

내일까지 강수량 50~100mm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광주·전남지역은 2일부터 4일까지 곳에 따라 50~10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비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할 것으로 보여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대비가 요구된다.

지리산지역은 시간당 20mm 이상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 산사태 주의와 산간 계곡 어영객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비는 이날 오전부터 내리다가 3일 밤부터 4일 오전 사이에 소강상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장마전선이 소멸하기까지 오전 최저기온은 22~25℃, 낮 최고기온은 26~2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약

"과거 왕조 시대라면 망한 정권, 왕조에서 도승지를 했으면 사약을 받지 않았겠냐"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28일 법정에서 자신의 처지를 왕조시대 도승지에 비유하며 정권 몰락에 대한 책임을 통탄했다. 도승지는 조선시대 왕의 비서 기관인 승정원의 우두머리로 오늘날 대통령비서실장에 해당하는 자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환 심리)로 열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김 전 실장은 피고인 신문 도중 "제가 모시던 대통령이 탄핵받고 구속도 됐는데 이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 보았다는 것이냐고 묻자 "무너진 대통령을 보좌했는데 만약 특검에서 재판할 것도 없이 사약을 받으려고 한다면 깨끗이 미사리고 끝내고 싶다"고 덧붙였다. 관련 인사들의 속세를 상상해 본다.

서은홍 기자·자료사진=뉴시스



박지원



김기춘



시민들

정권 망하게 한 일등공신 누구구지?

니란 말인가

인생 말로가 왜 그리 저저분한지...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